

# 국제수산 월간동향

2022. 3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 목 차

1. 대러 국제적 제재로 인한 수산 요식업계 타격은 상대적
2. IOTC, 신규 IUU 선박 목록 게재
3.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WTO 협상 난국
4.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RFMO의 과제
5. 영국 유통·식료품 업체 MSC 인증 다랑어 판매 시작
6. 브라질 수산물 수출 증가 도모

## 1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로 인한 수산 요식업계 타격은 상대적

- 미국이 러시아에게 부과한 수입 제재 및 영국이 비슷한 양상으로 부과한 관세 등 국제적 제재로 인하여 국제 수산 요식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으나 그 영향은 과거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상대적이란 의견이 나왔음
  - 제재로 인한 피해가 적은 한 업체의 경우 러시아산 게를 수입하고 있으나 유통업자가 러시아산을 대체할 원산지를 찾아 공급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았음
  - 한편, 미국 및 영국의 수산 요식업계 및 소매업자들은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에 따라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의 피시 앤 칩스 산업을 대표하는 피시 후라이 전국 연합(National Federation of Fish Friers (NFFF))에 따르면 10,500개의 요식업계 운영자가 폐업을 하거나 닭고기 또는 케밥 테이크아웃 식당으로 업종 변경을 해야할 수도 있음
    - 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마땅하지만 그 결과로 인하여 국내 업계 또한 그 타격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피해 대상 업계를 지원해줄 필요성을 어필함
  - 바이어들이 전세계적으로 대체 공급원을 모색함에 따라 많은 수산물 어종의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석유 또는 노동 비용 등과 같은 노력 비용 증가 요소가 수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출처: SeafoodSource<sup>1)</sup>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sanctions-on-russian-seafood-hitting-some-foodservice-operations-harder-than-others> ('22년 03월 25일 검색)

- 인도양참치위원회(Indian Ocean Tuna Commission, IOTC)은 인도 및 스리랑카 기국 선박 중 협약 수역 내 불법, 비규제, 비보고(IUU) 어업을 이행한 선박을 포함한 IUU 어업 목록을 새로 게재하였음
  - 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경우 시행중인 IOTC 보존관리조치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였거나 연안국의 규제 및 법의 요구에 준수하지 않아 등록될 수 있음
    - 인도 국기를 게양한 AVE MARIYA 선박의 경우 현 IOTC 허가 선박 목록에 등록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 수역에서 어업이 허용되지 않으나 본 연승선은 영국령 인도양(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BIOT) 수역 내 불법 어업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BIOT 수역 수색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도 기국 선박의 불법 어업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인도는 이에 대해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취하지 않고 있음
  - IOTC 집계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BIOT 수역에서 불법 어업을 하는 선박이 총 18척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문제 제기된 선박들의 경우, IOTC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어획을 기록 및 보고하지 않으며 위조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음
    - 또한, IOTC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소형어를 양륙하는 경우도 있으며 금어기간 또는 금어 수역에서 어업하는 경우도 문제 제기 되었음

- 그 외, 불법 어구를 사용하거나 IOTC 허가 선박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선박에 전재하는 경우도 있음

※ 출처: SeafoodSource<sup>2)</sup>

---

<sup>2)</sup><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iotc-publishes-new-list-of-vessels-perpetrating-iuu> ('22년 03월 25일 검색)

-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상대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이는 세계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집단적 움직임.
-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과 서방의 제재에 따른 경제적 고립은 증가하고 있는 보호주의 물결에 대해 규칙 기반의 무역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WTO의 노력을 후퇴시키는 것임.
- 제네바에 있는 대표단들은 6월 13일로 예정된 각료회의(본래 2020년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2차례 연기)에서 성과가 도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러시아와 협상하기를 거부하는 WTO 회원국들이 있다. 전쟁이 더 오래 계속될수록 WTO의 작업에 지장이 더 초래될 것이다.”고 전 WTO 직원이자 제네바의 변호사인 Hamid Mamdouh는 말했음.
- 워싱턴과 G7 회원국들은 동등한 교역국가로 상호 대우하기로 하는 “최혜국 대우 지위”를 러시아로부터 이미 박탈하였고,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의 WTO 가입 지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하였음.
- 러시아는 이에 대해, “서방이 세계 무역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음.
- 이러한 교환들 속에, 무역 지킴이인 WTO의 기본적인 활동이 유럽에서의 긴장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음.

- 서방 국가 대표단 중 한 사람은 WTO에서 러시아와 상대하기를 거부하는 대표단에는 EU, 미국, 캐나다, 그리고 영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들 대표단은 코멘트에 대한 공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음. “우리는 양자적으로 또는 소규모로 접근하기를 거부한다”고 한 취재원은 말했다.
- 이러한 접근은 수산, 농업, 전자 상거래, 투자 촉진에 관한 협상에 영향을 미쳤고, 관련 회의는 미루어졌거나 잠정 취소되었다고 무역 취재원은 말했다.
- “많은 정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고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킨 러시아를 상대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WTO 대변인 Keith Rockwell은 말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도, 27년이 된 WTO는 기구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 보일 것을 요구받아왔음.
- 2019년부터 기구 최고 분쟁해결기구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론에 대한 반대로 기능이 마비된 채로 있고, 수년간 이렇다 할 무역협정도 타결되지 않아, 이번 6월 회의는 기구가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었음.
- WTO 각료회의는 격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 회의를 연기하였고, 2021년 11월에 개최하려고 했으나 오미크론으로 인해 개최 계획이 또 무산되었음. 새로운 개최 예정일은 러시아의 침공 전까지는 확정된 일자였음.
- “여러 문제들의 누적으로 WTO가 붕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네바의 변호사는 말했다.

※ 출처: [www.reuters.com](http://www.reuters.com) 3)

\* 다음은 국제수산물지속가능성재단(ISSF) Holly Koehler 부이사장의 기고문을 번역한 것임.

- 2021년이 어업관리자들을 위한 도전적인 연도였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지만, 작년은 참치 어업 자원의 장기 지속가능한 이용의 보장으로 가는 작은 승리들도 있었음. 예를 들어, ISSF는 태평양과 대서양 참치 자원에 대해 필요한 수준의 보호를 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함.
- 하지만 전반적으로, 또 한번의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한 해였음. 인도양 황다랑어 보호를 위한 작은 움직임, 가장 큰 참치 어장인 중서부태평양에서 수확 전략 마련의 실패, 그리고 전자감시 및 FAD 관리에서 작은 진전은 2022년에 참치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가득한 목록을 줌.
- 코로나로 인해 RFMO의 작업 및 회의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3년째를 맞이하지만, 2021년은 화상회의 형식으로도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서로 떨어져 있고, 바쁜 일정과 어려운 기술 환경 가운데서도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회의가 있기 훨씬 전에 진정성 있는 대화, 협상을 요구함. 올해 RFMO들이 우선순위 이슈들에 대한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RFMO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작업을 지금 시작할 것을 촉구함.
- 2022년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부문은 다음과 같음:
- **(FAD 설계 및 관리)** 2021년은 보다 잘 설계되고 관리된 FAD를 위한 작은 진전들이 있었던 해였음. 과학자들과 어업인들은 그물을 사용하지 않고 생분해성 재료를 사용한 FAD의 연구 개발에 관해 수년간 협력해 왔음. 그러나 RFMO

3) <https://www.reuters.com/business/wto-trade-talks-disarray-amid-ukraine-tensions-sources-2022-03-22/> ('22년 03월 25일 검색)

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진전들의 채택 및 이행에서 지체되고 있음.

- 작년에, 중서부태평양과 동부태평양에서 어업관리자들이 FAD 설계 및 관리의 진전을 향해 개선된 조치들을 취하였음. 안타깝게도, 이러한 진전이 대서양과 인도양 참치 어업에서는 없었음.
- 2022년은 RFMO들과 선단들이 해양환경을 고려하는 설계를 한 FAD 사용으로 전환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한해가 되어야 함. 보다 환경친화적인 FAD 설계의 보편적 사용을 위한 연구의 계속과 함께, ISSF는 RFMO들이 다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과학에 토대를 둔 FAD 관리조치의 채택, FAD 데이터 제출 규칙 이행 강화, FAD 소유권 규칙 개발, 마킹 지침, 회수 조치
- **(수확전략)** 모든 참치 RFMO들은 2022년에 수확전략의 채택을 가속화해야 함. 목표 기준점과 한계 기준점, 어획통제규칙을 동반하는 수확전략은 어업자원 관리를 위해 사전 합의된 규칙과 어종별 자원상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함.
- 수확전략은 참치 자원 보호에 지연을 가져올 수 있는 끝없는 협상을 방지함. 또한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어업관행을 유인하는 해양관리협의회(MSC) 표준 인증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
- 참치 RFMO들은 수년 동안 수확전략 개발을 위해 논의해왔고, 일부 기구들은 수확전략의 요소 또는 특정 어종을 위한 어획통제규칙을 채택해 왔음. 그러나 이 중요한 작업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멀었음. 더 심각한 것으로, 2021년 WCPFC 연례회의에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 수확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회의가 종료되어 이 어종들에 대한 MSC 인증이 정지될 위기에 처했음.

- 올해 WCPFC가 수확전략에 관한 과학자-관리자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대서양에서 북대서양 날개다랑어를 위한 수확전략이 채택된 것은 긍정적인 걸음임. 그러나 2022년에 모든 참치 RFMO들은 포괄적인 수확전략의 채택을 위한 걸음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행동을 위한 때는 지금임.
- **(전자감시 및 보고)** 해상 조업활동에 대한 감시, 감독, 통제와 관련하여, 전자 감시(EM)와 전자보고(ER) 시스템이 효과적인 도구임이 증명되었음. EM/ER 시스템은 원격으로 해상 선박활동을 감시; 시기적절하게 중요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 그리고 보고된 어획량과 노력량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음. 불행하게도, 어떠한 RFMO도 전자감시 프로그램을 아직 도입하지 않았음.
- 코로나로 인해 모든 바다에서 참치 어업 오피서버의 승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결과적으로, 과학조언과 이행평가의 제공에 어려움을 초래했음. 만약 RFMO들이 EM과 ER 기술이 가용했을 때 프로그램을 신속히 도입했다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현재 가용했을 것이고 감시는 계속되었을 것임.
- 이 부문에서 작년에 일부 진전이 있었음. 예를 들어, 대서양과 인도양 어업에서 관리자들은 연례회의에서 새로운 전자감시 작업반을 수립하였음. 작업반이 과정의 필수적인 일부이지만, 작업반은 반드시 EM 및 ER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결과를 도출해야 함.
- 2022년에, ISSF와 우리의 파트너들은 EM과 ER 시스템이 세계 참치 어업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될 수 있도록 RFMO들의 보다 단호한 결정을 요청할 것임.
- **(참치 보존)** 참치 보존과 관련하여, 2021년에 RFMO들은 또다시 반보를 내딛었음. 동부 태평양에서는 참치 어업 관리자들이 자원보호를 위한 새로운, 진전된 열대성 참치 조치를 채택하였지만, 다른 곳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음. 중서부태평양 어업관리자들은 현재의 조치를 2년간 연장하는 조치에 합의했음.

대서양에서는 현재의 열대성 참치 조치가 일부 수정되어 1년 연장되었음. 인도양에서는 위험상태에 있는 황다랑어를 위한 새로운 조치에 합의했지만, 이 새로운 조치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 조심스러움. 과학적으로 권고된 황다랑어 어획량이 달성 가능할지는 불확실함.

- 2022년은 참치 관리조치들이 단순히 연장되는 것이 아닌, 과학적 조언을 완전히 이행하고 세계 참치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함. ISSF는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RFMO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함.

※ 출처: [www.seafoodsource.com](http://www.seafoodsource.com) 4)

---

4)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op-ed-2022-could-be-a-banner-year-for-sustainable-tuna-fisheries>  
(‘22년 03월 25일 검색)

### □ 가금류 수출 성공 경험에 기반하여 수산물 수출 증가 시도

- 브라질 무역투자진흥원(Brazilian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이 수산물 수출 증가를 계획하고 있음
- 브라질의 현 수산물 수출액은 약 USD 365백만으로 브라질의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남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하여 브라질은 수산물 수출 부분에서 큰 성장 여력을 갖고 있음
- 칠레는 인구 1,900만명에 총 GDP는 USD 2530억이며, 에콰도르는 1,800만 인구에 GDP는 USD 988억이며, 작년 연어와 새우 USD 50억 이상을 수출하였음
- 브라질은 가금류 수출에서 획득한 경험을 수산물 수출에 적용할 계획임
-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닭고기 수출국이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3% 증가한 417만 톤의 닭고기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브라질 수산물 기업은 국내 시장에 집중해왔으나, 일부 대기업들이 시선을 해외로 돌리고 있음
- 한 예로, 가금류를 생산 및 수출하고 있는 브라질 기업 Copacol은 동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틸라피아를 수출하려는 계획임
- 현재 브라질의 제1 수산물 수출시장은 미국이며, 2016년 미국 내 브라질 수산물 판매액은 약 17.2%, 판매량은 13.9% 증가하였으며, 작년 브라질 수산물 수출의 59.5%가 미국

시장으로 향하였음

- 브라질의 주요 수산 수출품은 USD 72백만의 수출액을 기록하는 랍스터이며, 이 외 다랑어, 도미, 정어리, 틸라피아 등을 수출하고 있음

출처: Seafoodsource<sup>5)</sup>

---

<https://www.seafoodsource.com/news/foodservice-retail/tesco-picks-up-png-tuna-princes-achieves-branded-tuna-sourcing-go> ('22년 03월 25일 검색)

### □ 대형 유통업체 Tesco와 식품 회사 Princes, 친환경 어획물 판매에 힘써

- 영국 대형 유통업체 Tesco가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을 받은 파푸아뉴기니(PNG) 다랑어를 매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 식품 업체 Princes는 2021년 모든 자사 다랑어 상품을 책임 있는 조업을 통한 어획물(responsible sources)로 공급하였다고 발표함
- Tesco는 자사의 책임 있는 사회적 정책(Responsible Social Policy(RSP))에 따라 PNG의 MSC 인증 다랑어를 구입하기로 결정함
- 채낚기(pole and line)으로 어획된 다랑어를 선호하는 영국 시장에서 Tesco는 영국에서 MSC 인증을 받은 선망 다랑어 어획물을 유통하는 첫 유통업체가 되었음
  - \* 선망 어업보다 채낚기가 자원에 대한 영향이 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
- 파푸아뉴기니는 2020년 선망 어업으로 어획된 눈다랑어 및 가다랑어에 대한 MSC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연안 인근에 다랑어 처리 공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식품 회사 Princes 역시 MSC 인증 다랑어를 공급받고 있음
- 지난해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등에 위치한 Princes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다랑어는 MSC 인증 또는 어선개선프로젝트(FIP) 인증을 받은 상품이며, 오스트리아 지사는 어류군집장치(FAD)를 사용하지 않은 선망선 또는 채낚기선으로 어획된 다랑어를 판매하였음
- Princes는 2019년 세네갈 채낚기 다랑어 어업개선프로젝트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으며,

2021년 인도양 황다랑어 공급의 50% 감축 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획된 수산물 판매에 힘쓰고 있음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up>6)</sup>

---

<https://www.seafoodsource.com/news/foodservice-retail/tesco-picks-up-png-tuna-princes-achieves-branded-tuna-sourcing-goal> ('22년 03월 25일 검색)